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

39. 베르겐 어부들?

심심한 듯하면서도 구수한 대구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간이 센 재료가 하나도 없어 배불리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내친 김에 노르웨이 디저트가 지 먹어 볼까 하다가 담백하게 먹은 입맛을 단것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 거기서 끝내기로 했다. 계산을 마치고 텅빈 대기실을 거쳐 나무문을 열고 다시 나무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온다. 문을 닫아 인기척이 사라져 방금 식사를 했던 브뤼겐 유적지 목조 건물 레스토랑이 마치 먼 곳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계단 옆에 있는 대형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매만지고 다시 어둑한 골목길로 나왔다.



있으며 그런 모습은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처럼 보였다. 남자들이 끼리의 유대감이 매우 끈끈하게 보였는데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해 온 지방이라서 그럴까? 덩치 큰 남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구 잡는 어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골목을 나와 브뤼겐 거리를 걸어 가며 환히 불을 밝혀 놓은 선물 가게들 안을 들여다보았다. 특산물 모직 스웨터를 비롯해 갖가지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가게 마다 가득했다. 귀여운 장난감들, 양증맞은 크리스마스 장식들, 노르웨이 국기를 수놓은 털 모자,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베르겐 산 모직 담요, 브뤼겐 목조 건물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품, 그 옛날 베르겐으로 항해 했던 한자 상인들의 범선인 듯한 배의 모형 등 예쁘고 재미있는 물건들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브뤼겐을 나와서 광장을 가로질러 호텔로 돌아간다. 낮에는 제법 돌아다니던 중국 관광객 젊은이들도 간 곳이 없었고,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한적한 베르겐 밤거리에는 불을 밝혀 놓은 작은 가게들만 눈에 띈다. 한 귀퉁이에 조그만 핫도그 가게가 있어서 가 보았다. 노면 특색 그림을 이용해 핫도그 종류와 가격을 전시해 놓은 것이 재미있었다. 노르웨이 핫도그는 어떻게 만드나 보았더니 미국 핫도그와 다를 것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팬에 소세지가 잔뜩 올려져 있는데 다만 그 사이즈가 굉장했다. 평소 먹던 미국 핫도그의 서너 배는 될 것 같은 대형 사이즈이다. 크기와 길이가 열 배는 족히 넘을 만한 초대형 사이즈도 있었다. 노르웨이어로 적혀 있는 핫도그 종류만도 열 가지가 넘어서 '음, 여기도 핫도그 열기가 만만치 않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하나 사 먹고 싶었지만 막 저녁식사를 마친 배가 너무 불러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동안 비가 그쳐서 밖에는 청명하고 차가운 공기가 어둠을 감싸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을 군데군데 작은 조명들이 밝히고 있는데 내가 빠져 나가야 할 골목 어귀에 대여섯 명의 남성들이 둥그렇게 모여 서서 한창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다들 체격이 큼직하고 중후한 노르웨이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보니 하도 커다란 체격들이라 그 사이를 뚫고 나가거나 주위를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골목을 꽉 막고 있어 나는 내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가자 아저씨들은 고개를 돌려 돌아보더니 정중히 목례를 하면서 일제히 골목 양쪽으로 비켜서 주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재빨리 몸 뒤로 담배를 감추기도 했다. 나도 고마워서 목례를 하고 사뿐히 골목을 빠져 나왔다.

베르겐에 와 며칠 지내면서 여기저기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남자들의 사교였다. 어디를 가든 여자 없이 덩치 큰 남자들만 5-6명에서 8-10명까지 카페나 식당에 모여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그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혹은 둘러 서서 뭔가 이야기에 열중하고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정상 영업합니다

- 남자 컷 \$12^{UP} •여자 컷 \$20^{UP}
 - 펌 + 컷 \$50^{UP}
 - 칼라+컷 \$50^{UP}
 - 칼라+헤어트리트먼트 \$60^{UP}
- 좋아지는 고객의 머리결은 저희 기쁨입니다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뿌리 부분만 "하프 inch" 블록 실러주는

시크릿 하프 inch 펌

- 갈라진 가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 볼륨있는 생머리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 납작한 머리형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 *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예약을 우선합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714)530-5755

8762 Garden Grove Bl. #106, Garden Grove, CA 92844(김치나라 건너편)

메디케어/처방약 보험/오바마케어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Senior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 ☑ ESRD Plan(말기신장염)투석케어

어르신들의 필요하신 혜택들을 28년의 오랜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Medicare Healthplan Specialist

Tel.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건강한 약국, 꿀약국!

독감 예방접종 합니다. 꿀약국으로 오세요!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스페이스 임대 2,279 Sqft

7002 Moody St. #108~109
La Palma, CA 90623

메디컬 오피스 환영

꿀약국으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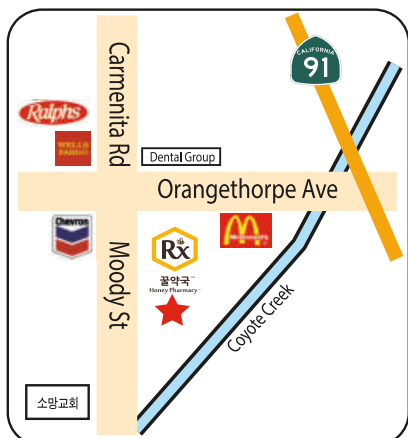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꿀약국™
Honey Pharmacy™



Tel: 562.403.2332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Fax: 562.403.2331

카카오톡 상담 환영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Honeyrx123@gmail.com



Honeyrx